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인정성, 신중히 확보해나가야

비정규직 연구원, 최근 5년간 꺾임 / 연봉은 시들
비중 감소, 정부의 일방적 지침보다는 신중히 접근해야

-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 현황'에 따르면,
- PBS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탁사업 수주 집중과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의한 엄격한 정원관리로 인해 비정규직 연구원은 2008년 기준 3,266명으로 전체 인원의 31.8%였으나 2013년 6월 기준 4,873명(38.4%)임.
 - 5년 반 동안 정규직 연구원은 862명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연구원은 1,607명 증가하여 증가분의 66.7%를 차지한 셈임.

< 최근 5년간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 규모 증가 추이 >

(단위 : 명)

연도	총 인원	비중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2008년	3,266	31.8%	1,202	2,064
2009년	3,406	32.7%	1,175	2,231
2010년	3,909	35.1%	1,406	2,503
2011년	4,346	37.1%	1,639	2,707
2012년	4,885	38.7%	1,877	3,008
2013년 6월	4,873	38.4%	1,763	3,110

* 자료출처 :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 해당년도 말 기준 (단, 2013년은 6월 말 기준)

* 기초기술연구회의 녹색기술센터(GTC) 2013.2.1. 설립 /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05.10. 설립

* 산업기술연구회의 세계김치연구소 2010년 설립 / 재료연구소 2007년 설립

- 최근 5년간 출연연 정규 연구직 직급 분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책임급 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약 1000여명 이상 증가하여 전체 연구원 중 42.5%에서 51.2%까지 비중이 증가하였음.
- 반 면, 선임급 연구원은 동 기간 동안 3,213명에서 2,932명으로 감소하여 전체 연구원 중 45.9%에서 37.6%까지 비중이 감소하였음.
-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최소 3년, 평균 5년 이상 선임급 재직 후 일정 성과 이상 달성해야 책임급으로 승진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책임급과 선임급 사이의 시간 차이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5년간 출연(연) 정규직 연구원 직급별 비중 >

(단위 : 명)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책임급	2,977 42.5%	3,149 44.9%	3,375 46.8%	3,564 48.3%	3,795 49.1%	3,997 51.2%
선임급	3,213 45.9%	3,155 44.9%	3,168 43.9%	3,167 42.9%	3,321 43.0%	2,932 37.6%
원급 이하	813 11.6%	715 10.2%	673 9.3%	646 8.8%	616 8.0%	876 11.2%
합 계	7,009	7,019	7,216	7,377	7,732	7,805

* 해당년도 말 기준

* 자료출처 :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 출연(연)의 연구직 연봉 평균값 차이를 분석해보면, 3개 기관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연봉이 월등히 낮은 값을 나타냈음.
- 신입 초임 삭감 혹은 적응기간을 고려한 연봉 산정을 감안하여 3년차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비정규직 연구원이 정규직 연구원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격차의 평균을 구하면 1,430만원(월 120만원) 수준임.

< 출연(연) 연구직 연봉 평균값* 차이 >

(단위 : 천 원)

기관명	학위	정규직 3년차	비정규직 3년차	3년차 기준 차이 (정규직-비정규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91,474	43,400	48,07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사	58,832	42,769	16,063
국가핵융합연구소	박사(5)*	64,524	65,580	△1,056
한국천문연구원	박사	52,880	42,702	10,17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58,505	39,983	18,522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63,163	42,151	21,01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	61,061	48,275	12,78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1)*	54,245	38,496	15,74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	52,224	51,020	1,204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57,925	63,391	△5,46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	50,272	44,182	6,09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5)*	56,350	55,269	1,08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박사	51,906	50,347	1,55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5)*	53,886	40,388	13,49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	47,551	58,021	△10,470
한국식품연구원	박사	52,860	35,237	17,623
세계김치연구소	석사(1)*	41,556	30,908	10,64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50,423	32,964	17,459
한국기계연구원	박사	53,814	45,789	8,025
재료연구소	박사	53,893	35,936	17,95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51,972	40,596	9,480
한국전기연구원	박사	51,953	44,052	7,901
한국화학연구원	박사	52,254	39,360	12,894
안전성평가연구소	박사(1)*	60,812	28,374	32,438
정출연 전체 평균				14,297

* 2012년도 연봉계약액 기준 (2012. 12. 최종학력별 기준)

* 비정규직의 경우, 시간제인 위촉/초빙연구원은 대상에서 제외

* 자료는 정규직 3년차와 비정규직 3년차 비교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기관 특성상 3년차의 연봉 비교가 불가능할 경우, (1): 1년차 비교 / (5): 5년차 비교

- 민병주 의원은 “PBS제도 도입으로 인해 수탁사업은 늘고 지원 인력은 부족하고 정원관리는 엄격하니 비정규직 연구원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국내 출연(연)의 현실” 이라고 지적하며,
- 또한 “현실적으로 전원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인 만큼 그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직으로라도 원하는 만큼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현실적인 급여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서 “비정규직 연구원 비중을 낮추고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단기간 비중 축소 지침을 전달하여 역효과를 낳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기존 정규직 연구원들과의 형평성, 기관의 재원 조달을 모두 고려하여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안정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